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여름 가족 캠프 등록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데스크에 싸인업해주세요.
4. 지난 주 공동의회 결과 김경현 목사 연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7일 : 윤바울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장승호 / 설교번역: 위충일
- 3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3월 정기 심방 : 주나 목장
- 3월 31일 부활절 온가족 예배 및 식탁교제
-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1주)

렘 31:31-34 / 시편 51:1-12,(119:9-16) / 히 5:5-10/ 요 12: 20-33

교회세운날 2017.6.11

23-10

3월 17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마 16:24b-25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임도영 자매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3장 1-12절 — 인도자

설교 —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2017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의 선교사 파송교회의 담임목사님이셨던 김종익 목사님께서 당시 저의 선교지였던 중국 시안(西安)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칭다오(靑島)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하는 교우를 방문하신 후 굳이 내륙으로 세 시간 비행기를 타고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목사님께서 뜬금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칭다오에 들렀다 왔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그만 두셔서 공석이신데 제가 그 자리를 맡아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만을 위해 20년을 준비했고 이제 언어 준비를 다 마치고 중국 교회와 손잡고 사역을 시작하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결국 저는 1200킬로미터를 옮겨가 칭다오에 있는 작은 한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지요. 칭다오에서 1년이 채워져 가는 그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아담한 예배 처소를 새롭게 단장하여 입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목회하자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추방의 아픔을 경험했죠. 저보다 교우들이 받았을 충격은 더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갑작스레 함께 예배드리던 목사가 그들 곁에 없다는 충격은 말로 다 못할 듯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트라우마도 상당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 하나님께서 칭다오에서 못다한 사랑을 나눌 교회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저와 다하나 교회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지요.

지난 주에는 저의 다하나교회에서의 연임을 교우들에게 묻는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기 전, 저에게 떨리냐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같은 해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찾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체스터든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 갈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곳을 부모를 따라 자주 옮겨 다녀야 했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서라도 로체스터에 오래 있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못다한 교회와의 사랑을 나눌 곳이 이곳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떨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결정된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 정주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의 비전과 교회를 향한 꿈에 동참하시겠다고 결정해 주신 교우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덕에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품이 있기에 저는 교회를 향한 따뜻한 꿈을 꾸입니다. 못다한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큰 뜻을 기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